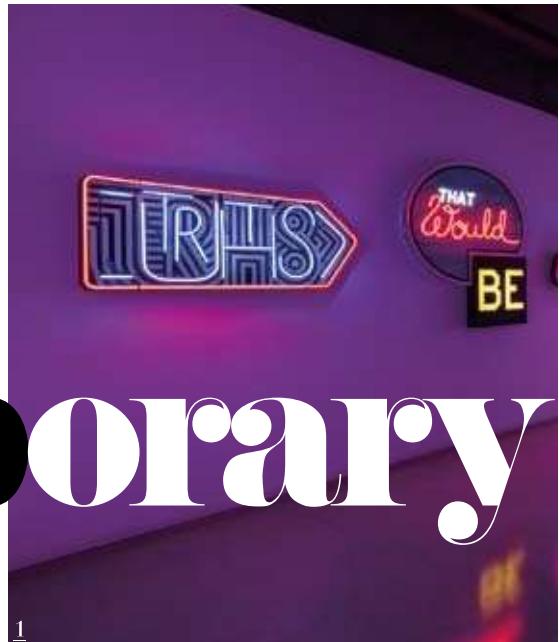


서울을 물들이고 있는 동시대 예술 감성 三色

meet the contemporary

흔히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을 가리켜 ‘현대미술’이라고 부르지만 미술계에서 ‘컨템퍼러리(contemporary)’라는 단어는 대개 ‘동시대’로 번역된다. 역사적인 관점과 개념으로 볼 때 ‘동시대 미술’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뒤부터 오늘날까지 진행 중인, 그러니까 ‘전후 현대미술’을 뜻한다. 그만큼 전쟁은 끔찍한 상처를 남겼고,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특히 주범이자 패전국인 독일의 자괴감과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고뇌와 갈등은 예술적 에너지를 폭발시킨다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독일에서 걸출한 아티스트가 많이 나왔다. 어떠한 양식도 강령도 방향도 지향하지 않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혁준하는 최고의 동시대 미술가로 평가받는 게르하르트 리히터도 전쟁의 포화로 쑥대밭이 됐던 옛 동독 드레스덴 출신이다. 마침 서울에서 오늘날 독일을 무대로 활약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되어 주목된다.



5년 주기로 독일 소도시 카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 도쿠멘타와 10년마다 찾아오는 공공 미술 축제인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동시에 펼쳐진 2017년. 이해에는 ‘그랜드 아트 투어’ 내지는 ‘문화 예술 기행’이라는 명목으로 독일을 위시해 유럽 일주를 감행한 이들이 꽤 많았다. 그 대열에 합류한 필자는 내친김에 크고 작은 독일의 여러 도시를 찾아다녔는데, 마침 85세 생일을 맞이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신작을 모은 전시를 그의 고향 드레스덴에서 감상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리히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작가 미상>에서 “예술만이 나치 이후 잃어버린 자유의 감각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극 중 인물(백남준과 더불어 ‘플러서스’ 운동을 이끈 전위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를 모델로 삼은 캐릭터)의 대사가 나오는데, 격변 기속 몸부림과 성찰이 어려 있는 독일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시대를 비추는 예술’을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리히터를 비롯해 게오르그 바셀리츠, 안젤름 키퍼 등 세기를 관통하는 거장들을 차치하더라도 독일 미술계의 풍경은 여전히 흥미로웠다. 국적을 막론하고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베를린 등지에서 이 시대를 호흡하고 고민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작가가 많은데, 국제적 명성에 비해 우리나라에 덜 알려진 듯한 느낌이다. 그 이수음을 달랠 만한 전시들이 서울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다.

펠레스 엠파이어(Peles Empire) _ 바리캇 컨템포러리

루마니아 출신의 바르바라 볼프(Barbara Wolff)와 독일 작가 카타리나 스토버(Katharina Stöver)가 만나 듀오를 이루어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펠레스 엠파이어’. 이 독특한 이름은 친구이던 두 작가가 2005년 같이 방문한 루마니아의 고성 ‘펠레스’를 본뜬 것이다. 르네상스 · 바로크 · 고딕 · 아르데코 등 다양한 양식이 위계 없이 뒤섞여 있는, 다분히 ‘포스트모던’적인 성안의 방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이처럼 다른 것들의 섞임에서 오는 긴장감을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고 ‘혼종성(hybridity)’을 주제로 디뤄온 이 듀오는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움이 앞섰다. 3년 전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작품을 꽤 인상적으로 접한 기억이 있어서다. 무너지는 성의 테라스 이미지를 담은 가울어진 8m 높이의 설치물을 겉으로는 우스꽝스럽게 웅장한 건축양식을 비꼬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바(bar)’로 변모한다. 그곳을 찾는 동시대 작가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한 ‘소통’과 ‘실험’의 장이었다. 이들은 베를린에서도 다른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를 하는 공간을 꾸리는 등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전시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솟았다. 더욱이 그들과 협업을 하게 된 서울 삼청동 갤러리 바리캇 컨템포러리는 유달리 충고가 높은 1층 내부 구조 덕분에 매력적인 전시 공간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가들은 내한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둘의 궁합은 성공적이었다. 작가들은 매끄러운 에폭시 재질의 살짝 얼룩덜룩한 갤러리 바닥을 재치 있게 활용했다. 갤러리 스태프가 바닥을 촬영해 A3 크기 용지로 출력한 후, 높다란 갤러리 벽면에 뒤덮듯이 붙여놓았다. 연한 갈색으로 똑같이 물들인 벽과 바닥에 그들의 그림과 조각 작품이 어우러진 광경은 꽤 근사한 시각적 희열을 선사한다. 이는 과거에 펠레스 성의 공주 방을 찍은 사진을 자신들의 아파트 거실 벽면에 붙여 재현한, 작가들이 즐겨 쓰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3차원적 작품을 2차원 방식으로, 혹은 그 반대로 보여준다”고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는 이 듀오는 “서로 다른 차원(dimension)에 생기는 ‘해석’의 차이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이질적 조합에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작업의 매력은 갤러리 벽에 걸린 조각 작품 ‘셀라돈’ 시리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오묘한 연녹색 노끈이 눈길을 끄는 이미지의 조합이 4cm 두께의 제스모나이트 위에 프린트된 이 평면 작품들은 고려청자를 부르는 영어 명칭 ‘셀라돈(celadon)’과 17세기 희극의 주인공으로 ‘아상향(arcadia)’를 추구한 목동 ‘셀라돈’에서 동시에 차용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완벽한 유토피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